

## 소설 속의 ‘くれる類’동사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의 번역양상 - 夏目漱石의 『こころ』를 중심으로 -

양 정 순  
(경희대학교)

### ◆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소설 『こころ』안에서 사용된 ‘くれる類’ 동사가 번역가에 의해 재생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번역 양상을 ‘표현주체와 상대에 따른 사용’과 ‘이동대상’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

‘표현주체와 상대에 따른 사용’은 다음과 같다. ‘くれる類’ 동사의 사전적 어휘 용법에 머무르지 않고 장면에 따라 번역되었다. 그런데 ‘주는 자’가 순위의 인물일 때 사용된 ‘くれる’에 대한 한국어 역은 ‘주는 자’가 부모라면 전부는 아니지만 가급적 그 행위를 높여서 번역하는 경향이 보였다. 정중도에 대한 영어 역의 차이는 ‘くれる類’ 동사가 부탁·의뢰·명령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될 때 나타났는데, ‘くれる’보다 ‘くださる’ 쪽에서 ‘please’의 사용이 보였다.

‘이동대상’에 따른 번역 양상은 다음과 같다. 본동사로 사용될 때의 한국어 역은 ‘くれる’ ‘くださる’에 대응하는 ‘주다’ ‘주시다’로 번역되었지만, 영어 역은 이동 대상의 특징에 따라 번역 어휘가 다양했으며 구체화된 행위의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보조동사로 사용될 때의 한국어 역과 영어 역은 행위의 이동 이외에 사물의 이동이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번역 어휘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 역은 구체적인 사물과 더불어 행위의 이동이 있을 때는 ‘-주다’ ‘-달라’ ‘-주시다’ 등과 같은 수익을 나타내는 번역이 우세했다. 추상적인 사항과 함께 행위의 이동이 있을 때와 이동 대상에 행위만 있을 때의 한국어 역은 수익을 나타내는 번역도 있었지만, 전향동사의 행위로 번역된 예도 보였다. 영어 역은 구체적인 사물 및 추상적인 사항이 포함된 행위의 이동이 있을 때나 행위의 이동만 있을 때도 전향 동사의 행위로 번역된 예가 우세했다. 부탁·의뢰를 나타내는 표현에 한국어 역은 ‘-달라’ ‘-주세요’와 같이 ‘くれる’와 ‘くださる’에 대응하는 번역이 있었던 반면, 영어 역은 ‘must’ ‘ask’ ‘wish’ ‘would’ ‘would like to’ ‘please’와 같이 문 구조나 언어 기능 항목에 초점을 두어 행위를 구체화 시키는 번역이 중심을 이뤘다.

주제어 : 수수동사, 번역양상, 대조, 이동대상, 정중

## 1. 머리말

일본 문학이 소개된 이후로 일본 관련 번역물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학번역은 번역가에 의해 텍스트가 재생산된다고<sup>1)</sup> 하는데, 텍스트를 재생산할 때 번역가는 원문에 충실할지 자국의 언어에 충실할지에 대해 타협을 해 간다고<sup>2)</sup>한다. 일본어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도 두 언어의 상이점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을 접하게 된다. 이를 접하는 독자나 학습자는 번역가의 어휘 선정의 창의성으로 인해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실질교재<sup>3)</sup>로 접하게 될 때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번역 양상에 대한 일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의 분석 대상 어휘로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점을 갖고 있고 한국인 학습자에게 주의를 요하는<sup>4)</sup> 수수동사로 했다. 일본어의 수수동사는 ‘남에게 건네다’와 ‘자기에게 건네다’<sup>5)</sup>라는 2종류 갖는 한국어와는 달리, 화자, 상대, 이야기속의 이동 대상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동사의 사용이 결정되며, ‘与える(주다)’의 ‘やる類’ ‘くれる類’, ‘受ける(받다)’의 ‘もらう類’ 3종류가 있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일본어의 수수동사는 시점과 대인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동사 사용만으로 이동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데<sup>6)</sup>, 한국어는 ‘やる’ ‘くれる’가 ‘주다’로 대응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수수동사 가운데 화자의 위치가 주어(‘주는 자’)보다는 여격목적어(‘받는 자’)에 있고<sup>7)</sup>, 상대(‘주는 자’)가 화자(‘받는 자’)에게 건넨다는 ‘与える(주다) 동사’의 ‘くれる’ ‘くださる’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작품으로서 일본 근대 문학에 한 주류를 이룬 일본 국민 작가의 작품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こころ』번역물을 삼고자 한다.

1) 라데군디스 슈틀체, 『번역이론 입문』,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2011, p.101쪽.

2) 주1)과 같음.

3) 高見澤孟, 『新・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2』, アスク, 2004, p.48.

4) 조남성, 『일본어어용분석』 보고사, 2007, p.69.

5)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pp.140-141.

6) 豊田豊子,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 『日本語学校論集』 1, 東京外国語大学, 1974, pp.77-96.

7) 久野暉, 『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1978, pp.140-163, pp.160-163, pp.173-188.

## II.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수수동사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일 대조 분야는 다음과 같다. 奥津敬一郎<sup>8)</sup>은 일본어의 수수동사에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와 영어 동사의 문의 구조와 경어체계를 비교분석했으며, 'くれる'은 '주다', 'くださる'은 '주시다', 'give'로 제시했다. 林八龍<sup>9)</sup>은 일본어 수수동사에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을 분석했다. 한국어 표현 '주다'에 대해 'あげる' 'くれる'로, '주시다'에 대해 'おやりになる' 'やられる' 'くださる'로, 보조 용언 '-어/아 주다'는 'てやる'와 'てくれる'로 제시했다. 그리고 희망·명령 표현으로 '-어/아 달라'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吉川千鶴子<sup>10)</sup>는 발상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일본어와 영어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중의 하나인 수여동사는 목표로의 이동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이동결과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구조적인 특징을 서술했다. 久野暉<sup>11)</sup>은 영어·일본어의 수여동사에 대해 시점(카메라, 앵글), 공간도, 시점의 일관성을 제시하여 수수동사의 시점제약에 따른 문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 밖에 일본 근대 소설 번역물을 이용한 한일 대조 연구는 다수 있지만, 수수동사에 관한 한일 대조는 문법적인 레벨에서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러한 내용을 거쳐 『こころ』에 나타난 'くれる·くださる'가 어떤 양상으로 번역되어 나타났는지 영어표현과 차이를 두어 분석한다.

분석 대상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소설 『こころ』는 10여종 이상의 번역물<sup>12)</sup>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식민지 시대 이후 공식 출판되었다는 1990년에 출판된 한국어 번역물과 영어를 모어로 한 작가의 영어 번역물<sup>13)</sup>로 했다. 『こころ』는 「先生と私」 「両親と私」 「先生と遺書」라는 상

8) 奥津敬一郎, 「日本語の授受動詞の構文—英語・朝鮮語と比較して—」, 『人文學報』 132, 東京都立大学, 1979, pp.1-27.

9) 林八龍, 「日本語韓国語の授給表現の対照研究」, 『日本語教育』 40, 1980, pp.113-120.

10) 吉川千鶴子, 『日英比較動詞の文法』, くろしお出版, 1995, pp.37-51, p.222.

11) 주7)과 같음.

12) 윤상인 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소명출판, 2008, p.59, p.189.

13) 서석연, 『마음』, 범우사, 1990.

Edwin McClellan 『KOKORO』, HENRY REGNER COMPANY, 1957.

중하 3부로 이루어졌으며,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내레이터(語り手)는 ‘私(나)’이다<sup>14)</sup>. 수수동사의 특징을 고려해 내레이터인 ‘私’도 대화의 장면면에 포함시킨다. 수수동사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는 동사이므로, 수수의 행위가 가족구성원끼리 이루어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대인관계가 내적인물로 구성된 경우] [대인관계가 외적인물이 포함된 경우]로 나누어 <표현주체와 상대에 따른 사용>을 분석하고 ‘くれる類’ 동사의 상하관계에 따른 사용 어휘는 메이지기에 걸쳐 편찬된 『言海』<sup>15)</sup>를 기준으로 한다. 수수동사가 사물이나 행위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중의 하나이므로 <이동대상에 따른 번역>을 분석한다. 이동 대상에는 구체적인 사물인 ‘もの’의 이동과 사물이 아닌 ‘こと’의 이동이 있는데<sup>16)</sup>, 본동사의 경우는 이동 대상의 특징에 따라 서술하고 보조동사의 경우는 이동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인지 추상적인 사항인지 행위인지에 따라 서술하고자 한다.

### Ⅲ. 표현주체와 상대에 따른 번역

일반적으로 ‘くれる類’의 동사는 화자 또는 화자 자신과 가까운 인물이 ‘受’쪽에 있는 동사로, ‘주는 자·받는 자·내외관계(身内・よそもの)’에 따라 ‘くれる-くださる’<sup>17)</sup>의 동사 사용이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가 [내적 인물로 구성된 경우]와 [외적 인물이 포함된 경우]로 나누고 예문의 뒤에 [‘주는 자’→‘받는 자’, →는 이동 방향]로 인물관계를 제시하여, 수수동사의 사용례를 분석한다.

다음의 <표 1>은 대인관계가 가족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장면에서 사용된 어형과 그에 따른 사용수를 회화문과 지문으로 나눈 것이다.

14) 遠藤嘉基・池垣武郎, 『日本文学史』, 中央図書, 1960, p.143.

15) 大杉文彦, 『言海』, 関西売捌所, 1889.

16) 花田康紀, 『現代日本語の受給表現をめぐって-動詞の中止形+受給動詞の場合』, 東京国際大学論叢 人間社會學部編 55, 1998, pp.93-112.

17) 沼田善子, 「授受動詞文と対人認知」 『日本語学 18』, 明治書院, 1999, pp.46-54.

〈표 1〉 수수의 대인관계가 내적 인물로 구성된 경우

(등장인물이 2명일 때)

		くれる		おくれる		くださ		くださる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0		0		0		1	주시다 will
	지문	0		0		0		0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0		0		0		0	
	지문	0		0		0		0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0		0		0		0	
	지문	0		0		0		0	
		てくれる		ておくれる		てくださ		てくださる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0		0		0		2	∅, -주다 ∅, please+∅
	지문	7	∅, 가다, 오다	0		0		0	
			주다, 달라 ∅, ★, send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0		0		0		0	
	지문	0		0		0		0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6	∅ -주다	1		0			
			∅, ★ please+∅						
	지문	2	∅	0		0		0	
			∅						

‘て’형과 결합될 때: ∅는 전향동사로, ★는 다른 어휘로 번역된 경우

\*회화문의 경우

- 「そうしておくれ」と母が頼んだ。[私→母]  
[한] “그렇게 해주겠니?”하고 어머니가 부탁조로 말했다.  
[영] “Yes, please do,” she said imploringly.
- 「あんまり仰山な事は止してください」[母→私]  
[한] “너무 떠들썩한 일일랑 그만두세요.”  
[영] “Don't do anything so elaborate for my sake, please,” I said.

\*지문의 경우

- 父は私の注意を母よりは真面目に聞いてくれた。[父→私]  
[한] 아버지는 나의 주의를 어머니보다는 진지하게 들었다.  
[영] He listened to me more attentively than my mother had done.

가족 구성원끼리 이루어진 회화문의 경우, ‘주는 자’가 손위(부모, 남편)일 때는 높임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주는 자’가 손아래의 인물(자녀, 아내)일 때는 ‘くれる’가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한국어 역은 보통체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주는 자’가 손아래의 인물인 성인 아들일 때, 예(1)처럼 ‘お’가 접속된 ‘おくれる’의 어형이 보였는데, 이때의 한국어 역은 보통체 표현으로 번역되었지만, 영어 역에서는 ‘くださる’에서 종종 보였던 ‘please’가 사용되었다. ‘주는 자’가 손위일 때 사용된 ‘くださる’는 ‘주시다’라는 번역도 있었지만 예(2)처럼 ‘주다’동사가 아니더라도 전향동사에 존경표현의 ‘-시-’<sup>18)</sup>가 더해져 번역되기도 했다. ‘주는 자’가 손위일 때 사용된 ‘くれる’는 주로 지문에서 보였는데, 이때의 한국어 역은 예(3)처럼 ‘주는 자’를 높이지 않고 보통체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했다.<sup>19)</sup> 한국어와 일본어가 갖고 있는 대우체계가 다른 영어<sup>20)</sup>는 ‘くれる’와 ‘くださる’의 명확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부탁·의뢰로서의 ‘てください’의 영어 역은 ‘please’가 더해지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대화의 장면에 제 3의 인물이 있는 경우를 서술하고자 한다. <표 2>는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화자 ≠ 받는 자’ 또는 ‘청자 ≠ 주는 자’에 해당될 때의 어형과 사용수에 관한 것이다.

18) 주5)와 같음. 240쪽, 323-336쪽.

19) [박순규, 『마음』 인디북, 2002]에서는 ‘들어 주셨다’로 번역된 사례가 있는 것과 같이, 지문이라도 부모에 대해서는 높임표현으로의 번역이 보였다.

20) 奥津敬一郎, 「授受表現の対照研究-日・朝・中・英の比較-」, 『日本語学』, 明治書院, 1983, pp.22-30.

<표 2> 수수의 대인관계가 내적 인물로 구성된 경우

(등장인물에 제3의 인물이 있을 때)

		くれる		おくれる		くださ		くださる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받는자	지문	0		0		0		0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받는자	지문	0		0		0		0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받는자	지문	0		0		0		0	
		てくれる		ておくれる		てくださ		てくださる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받는자	지문	0		0		0		0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받는자	지문	0		0		0		0	
주는자	회화문	1	주다	0		0		0	
<받는자	지문	0	★	0		0		0	

\*회화문의 경우

- (4) しかしそんな忙しい身体でもないんだから、ああして泊っていてくれるんでしょう。[妹婿→私たち]  
 [한] 하지만 그렇게 바쁜 처지도 아니니 저렇게 있어주는 거지요.  
 [영] That's probably why he's been good enough to remain here.

예(4)는 동생(화자)과 형(청자)의 대화로, 매제의 '泊っている'라는 호의를 받는 '받는 자'는 화자 자신과 청자에게도 해당된다. 제 3의 인물인 '주는 자'가 손아래의 인물일 때 사용된 'くれる'에 대한 한국어 역은 '주다'인 보통체 표현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인 관계를 확대하여 외적 인물간의 사용에 대해 서술한다. <표 3>은 가족이 아닌 외적 인물간의 장면에서 사용된 어형과 그에 따른 사용수다.

〈표 3〉 수수의 대인관계가 외적 인물이 포함된 경우

(등장인물이 2명일 때)

		くれる		おくれる		くださ		くださる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1	달라 ask	0		0		4	주시다 marry, want
	지문	2	주다 give, get	0		0		0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0		0		0		0	
	지문	0		0		0		0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0		0		0		0	
	지문	0		0		0		0	
		てくれる		ておくれる		てくださ		てくださる	
주는자 미지정	회화문	0		0		0		0	
	지문	1	-주다 ★	0		0		0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1	-주다 ∅	0		0		5	★, -주시다 ★, allow, let+★ please+★
	지문	24	∅, ★, 보내주다 -주다, -달라 ∅, ★, ask, give, will+∅ could+★ would+∅	0		0		0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7	∅, -달라 ∅, want+★	0		0		0	
	지문	3	-주다, -달라 ∅, ask+∅	0		0		0	
주는자 <받는자	회화문	3	-주다, -달라 can+∅ must+∅	1	-주다 ∅	1	-주시다 must+★	10	★, ∅, 그렇다 -주다, -주시다 ★, ∅, have allow+∅ please+★ ∙ ∅
	지문	6	★, -주다, -달라 ∅	0		0		13	★, ∅, -주시다 ★, ∅, will+∅ want+∅ please+∅

‘て’형과 결합될 때: ∅는 전향동사로, ★는 다른 어휘로 번역된 경우

\*회화문의 경우

- (5) 「おっかさんにそういっとくれ。少しここで休まして下さいって」  
 [少年→先生]  
 [한] “어머니에게 말씀 좀 전해주겠니?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다고 말이다.”  
 [영] “Go to your mother and say that we would like her permission to rest here for a while.”
- (6) 「召し上がって下さいよ。その方が淋しくなくて好いから」[私→奥さん]  
 [한]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편이 쓸쓸하지 않고 좋으니까.”  
 [영] “Please do. Then you will stop being melancholy.”
- (7) 「頭が鈍くて要領を得ないのは構いませんが、ちゃんと解ってるくせに、はっきりいってくれないのは困ります」[先生→私]  
 [한] “제 머리가 나빠서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선생께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영] “I would not mind so much, if I thought that you were too dull a person to realize that your remarks are often not very clear to me. But I do mind, because I know that you could tell me much more if you so wished.”
- (8) 「先生、罪悪という意味をもっと判然いって聞かして下さい。それでなければこの問題をここで切り上げて下さい。私自身に罪悪という意味が判然解るまで」[先生→私]  
 [한] “선생, 죄악이라는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시죠. 아니면 이 문제를 여기서 끝 맺어주시시오. 나 자신이 죄악이라는 뜻을 확실히 알 때까지 말입니다.”  
 [영] “Sensei, please explain more clearly what you mean by ‘guilt’. Otherwise, please let us not discuss this matter again, until I have myself found out what this ‘guilt’ is.”

\*지문의 경우

- (9) 私を理解してくれるあなたの事だから、説明する必要もあるまいと思いますが、話すべき筋だから話して おきます。[私(あなた)→先生(語り手)]  
 [한]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리라 믿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은 꼭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영] You know me well, and I suppose there is no need for me to explain what this was that prevented me from confessing to my wife. Nevertheless, I feel that I owe you an explanation.

(10) その悲劇のためにむしろ生れ出たともいえる二人の恋愛については、先刻いった通りであった。二人とも 私にはほとんど何も話してくれなかった。[先生夫婦→私]

[한] 오히려 그 비극 때문에 탄생했다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연애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대로이다. 두 분 다 나한테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영] And, as I have said before, Sensei and his wife told me almost nothing of their courtship, which had come into being as though for the sake of the tragedy.

(11) これはとくにあなたのために付け足しておきたいのですから聞いて下さい。[私→先生(語り手)]

[한] 이것은 특히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니 잘 들어주십시오.

[영]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what I am now going to say; it is intended for your benefit.

외적 인물이 포함된 장면에서의 회화문을 보면 ‘주는 자’가 손위일 때 ‘くださる’이외에도 ‘くれる’가 사용되었다. ‘くれる’가 사용된 경우는 예(7)과 같이 화자가 상대와 친숙하다고 생각하며 조를 때 사용한 장면에서 보였다. 이때의 한국어 역에는 ‘주다’의 보통체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다만 문미에 ‘-시’의 표현을 더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くださる’가 사용된 경우는 예(8)처럼 ‘주시다’로 번역되었다. 영어 역은 모든 ‘くださる’에 대한 표현에 대응해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대개 ‘please’의 사용을 더해 정중함을 표현했다. ‘주는 자’가 손아래인 경우에도 손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くれる’와 ‘くださる’가 사용되었다. 이때의 ‘くださる’는 주로 명령·의뢰·부탁 표현에 해당되었는데 예(6)처럼 상대를 높이면서 화자의 품격을 부여하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었으며, 한국어 역으로도 높임 표현으로 나타났다. お’가 접속된 ‘おくれる’의 어형은 앞서 언급했던 여성화자 외에 예(5)처럼 남성 화자에게서도 보였다. 이때의 청자는 처음 보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예(1)에서 보였던 ‘please’의 사용 없이 명령형으로만 번역된 것으로, 상대에 따라 명령의 정중도를 달

리하고 있었다. 지문의 경우, '주는 자'가 손아래일 때 사용된 'くれる'은 일반적으로 예(9)처럼 보통체의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주는 자'가 손위일 때 사용된 'くれる'은 예(10)과 같이 보통체 표현으로 번역되었고, '주는 자'가 손아래일 때 사용된 'くださる'은 예(11)과 같이 편지글에서 나타났으며 문체의 특징상 높임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다음은 대화의 장면에서 외적 인물 사이에 제 3의 인물이 있는 경우를 서술하고자 한다. <표 4>는 장면에서 외적 인물로 구성되고 '화자 ≠ 받는 자' 또는 '청자 ≠ 주는 자'에 해당될 때의 어형과 사용수에 관한 것이다.

<표 4> 수수의 대인관계가 외적 인물이 포함된 경우

(등장인물에 제3의 인물이 있을 때)

		くれる		おくれる	くださ	くださる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받는자	지문	0		0	0	0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받는자	지문	0		0	0	0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받는자	지문	0		0	0	0	
		てくれる		ておくれる	てくださ	てくださる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미지정	지문	3	★, -주다 ★, ∅	0	0	0	
주는자	회화문	0		0	0	4	★, -주다, -주시다 ★, ask+∅, would+∅
>받는자	지문	35	★, ∅, 보내다 -주다, -달라 ★, ∅, receive, could+∅, ask+∅ want+∅, help+∅ helpful, send	0	0	0	
주는자	회화문	0		0	0	0	
=받는자	지문	6	∅, ★, -주다 ∅, ★, would+∅	0	0	0	
주는자	회화문	1	★ ★	0	0	1	★ would like to
<받는자	지문	8	∅, -주다, -달라 ★, ∅, present, forward, give would+∅	0	0	0	

'て'형과 결합될 때: ∅는 전향동사로, ★는 다른 어휘로 번역된 경우

\*회화문의 경우

- (12) 「先生に聞いても教えて下さらないから」[先生→私]  
[한] “선생에게 여쭙어보았는데 말씀해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 “I asked Sensei, and he wouldn't tell me.”
- (13) 「お前のいのような偉い方なら、きっと何か口を探して下さるよ。頼んでご覧なのかい」[先生→私]  
[한] “네 말대로 훌륭한 분이려면 분명히 어떤 자리든 알선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래 부탁은 해보았느냐?”  
[영] “If this man is as clever as you say he is,” said my mother, “then I'm sure he will find you a job. Have you asked him?”

\*지문의 경우

- (14) 私は自分の過去を顧みて、あの時両親が死なずにいてくれたなら、少なくとも父か母かどっちか、片方で好いから生きていてくれたなら、私はあの鷹揚な気分を今まで持ち続ける事ができたらうにと思います。[両親→先生]  
[한] 나는 내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 양친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적어도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어느 한 분만이라도 살아 계셨다면 그 대범한 기상을 오늘날까지 지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 As I look back on my past, I cannot but feel that had my parents-or at least one of them-survived, I might have been allowed to keep my generous nature.
- (15) 叔父はまた一切を引き受けて凡ての世話をしてくれました。[先生の叔父→先生]  
[한] 숙부는 또한 모든 것을 떠맡아서 보살펴주었습니다.  
[영] My uncle, on his part, accepted full responsibility and looked after my affairs.
- (16) 奥さんはそれでも丈夫そうになったといって賞めてくれるのです。[奥さん→先生]  
[한] 아주머니는 그래도 건강해 보인다고 하며 치켜세워주었습니다.  
[영] She soon recovered from her shock, however, and was good enough to say that we looked very healthy.

제 3의 인물이 있고 외적인 인물이 포함된 경우의 회화문의 경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순위일 때의 ‘くださる’는 예(12)의 ‘주시다’와 같은 높임 표현과 예(13)의 ‘주다’와 같은 보통체 표현의 번역이 있었다.<sup>21)</sup> 보통은 예(12)와 같은 번역이 보였는데, 예(13)처럼 화자인 부모가 제 3의 인물인 ‘주는 자’를 상하관계의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번역가에 따라 번역 어휘가 다를 수 있었다. ‘주는 자’가 순위인데도 ‘くれる’가 사용된 경우는 회화문보다 지문에서 많았다. 지문인 경우 예(15)(16)와 같이 ‘주다’라는 보통체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주는 자’가 부모님일 때 예(14)와 같이 한국어 역은 ‘돌아가시지 않다’, ‘살아계시다’처럼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상위자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용되었다.

『言海』에서 ‘下へ遣ル’<sup>22)</sup>의 의미로서 제시된 ‘くださる(くだす)’는 『こころ』에서는 순위에서 손아래로의 방향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손아래에서 순위로의 방향도 있었으며, 이에 따른 한국어 역은 장면에 따라 보통체 표현 및 높임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주는 자·받는 자·내외관계(身内・よそもの)’라는 상대적 관계에 의해 사용된 ‘くれる’의 경우, 한국어 역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라면 높임 표현이 보이기도 했다. 대우체계가 상이한 영어는 ‘くれる’와 ‘くださる’의 번역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탁·의뢰와 같은 용법에서 상대에 따라 ‘please’가 부가되는 차이가 있었다.

이상 『こころ』에 나타난 ‘くれる類’ 동사의 표현 주체와 상대에 따른 사용례의 번역 양상에 대해 서술했다. ‘くれる類’에 대한 번역은 사전 및 문법에서 제시한대로 성립되지 않았고, 담화 장면에 따라 느껴지는 친소 관계에 따라 높임의 표현이 결정되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수수동사가 사물이나 행위의 이동을 나타내는 점에서, 이동 대상의 종류에 따라 수취의 태도가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이동 대상에 따른 번역에 대해 서술한다.

21) [박유하, 『마음』 웅진출판 1995] [김성기, 『마음』 이레 2008] [이지선, 『마음』 책 만드는 집 2012] [김활란, 『마음』 더클래식 2014] 등에서는 ‘주시다로 번역되었다.

22) 주15)와 같음. p.278.

#### IV. 이동 대상에 따른 번역

일본어는 표현에 있어서 ‘화자의 시점’을 항상 염두하며 이야기하는 상대나 이야기 속의 인물·사건이 자기 쪽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어휘 사용이 다르다<sup>23)</sup>고 하는데, 일본어 수수동사도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사용된다. 이는 곧 이동 과정이나 이동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くれる類’ 동사는 사물이나 소유권의 이동이 ‘外(상대 또는 상대 측의 인물)’에서 ‘内(화자 또는 화자 측의 인물)’로 이동<sup>24)</sup>하는데, 본 항은 이를 바탕으로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누고 이동대상의 특징에 따라 번역양상을 분석한다.

##### 1. 본동사의 경우

- (17) そうしてそれを食う時に、必竟この菓子<sup>菓子</sup>を私にくれた二人の男女は、幸福な一対として世の中に存在しているのだと自覚しつつ味わった。

[한] 나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 과자를 나에게 준 두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한 쌍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영] I thought of the couple that had given it to me and decided that they must surely be happy with each other.

- (18) 「ついでに地面<sup>地面</sup>も下さいよ」

[한] “주시는 김에 밭도 주세요.”

[영] “You might as well will me the land too.”

- (19) 「下さい、ぜひ下さい」といいました。

[한] “주십시오! 제발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영] “Please,” I said, “let me marry her. I want Ojosan very much.”

본동사 ‘くれる類’에 대한 한국어 역은 예(17)(18)(19)와 같이 ‘주다’

23) 森田良行, 『日本語の視点—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 創研社, 1995, pp.169-180.

24) 주17)과 같음.

‘주시다’라는 수수 행위에 관련된 어휘에 머물렀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인 화자를 위해 행동했거나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화자의 입장이 보였다. 그와 달리 영어 역은 ‘give’ 외에 ‘will’ ‘marry’ ‘want’ 등과 같이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는 행위 중심의 구체적 표현<sup>25)</sup>으로 어휘 영역이 확장되어 나타났다. 예(17)와 같이 ‘주는 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 남긴 것을 얻게 된다는 ‘will’로 번역하거나 예(18)과 같이 ‘ください’에 대해 화자의 희망으로 바꾸어 ‘want’로 번역하거나 상호적 동작의 ‘marry’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번역이 보였다.

본동사 ‘くれる類’의 한국어 역과 영어 역의 번역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5〉 이동 대상의 종류에 따른 번역 예

한국어		くれる	영어	
과자	주다	菓子	it	give
답장	주다	返事	reply	get
따님	달라	お嬢さん	daughter	ask
한국어		くださる	영어	
땅	주시다	地面	land	will
따님	주시다	お嬢さん	Ojosan	marry, want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동사 ‘くれる類’에 대한 한국어 역은 ‘주다’ ‘달다(달라)’ ‘주시다’라는 수수 행위에 관련된 어휘에 머물렀지만 영어 역은 ‘give’ ‘will’ ‘marry’ ‘ask’ ‘want’ 등 구체적인 행동이나 행동의 요구가 있는 어휘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보조동사의 경우

(20) 私は父に向かって当分今まで通り学資を送ってくれるようにと頼んだ。

[한] 나는 아버지에게 당분간 종전처럼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25) 金谷武洋, 『日本語文法の謎を解く』ちくま新書, 2003, p.45.

부탁했다.

[영] I asked my father if he would continue sending me the allowance that I had received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21) 先生はただ親切ずくで、返事を書いてくれたんだと私は思った。

[한] 선생은 그저 너무 자상해서 답장을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 Sensei had kindly written, I decided, in reply to my letter.

(22) 私が食事の時気分が悪いといったのを気にして、奥さんは十時頃 蕎麦湯を持って来てくれました。

[한] 식사 때 내가 기분이 언짢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주머니는 열시쯤 메밀당수를 가져왔습니다.

[영] At about ten o'clock, Okusan, remembering that I had said I was not feeling well, kindly brought me some buckwheat gruel.

(23) 例の椎茸もついでに持って行った。ただ出すのは少し変だから、母が これを差し上げてくれといいました とわざわざ断って奥さんの前へ置いた。

[한] 표고버섯을 함께 가져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내놓기가 뭣해서 어머니가 갖다드리라고 했다는 말을 앞세우며 부인 앞에 내놓았다.

[영] I thought it might seem odd to produce the mushrooms without some explanation, so, as I put them down in front of Sensei's wife, I carefully explained that my mother had wished me to present them to her and Sensei.

예(20)~(23)은 ‘学資を送ってくる’ ‘返事を書いてくれる’ ‘蕎麦湯を持って来てくれる’ ‘これ(椎茸)を差し上げてくれる’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의 이동과 함께 행위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의 한국어 역은 ‘보내다’ ‘드리다’와 같이 수수 및 이동에 관한 동사가 사용되었고, 영어 역은 ‘send’ ‘present’ ‘bring’ ‘write’라는 소유권, 위치, 행위의 이동<sup>26)</sup>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로 번역되었다.

26) 주10)과 같음.

예(20)(21)처럼 이동대상이 ‘学資’나 ‘金’와 같은 금전이거나 우편물일 때의 한국어 역은 ‘送る’와 같은 이동의 뜻을 지닌 어휘에 은혜 및 이익의 전달을 더해 번역되는 양상이 보였다. 그러나 예(22)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과 함께 ‘持って来る’와 같은 구심적 방향의 전향 동사가 사용될 때는 은혜성이 생략된 채 ‘가져오다’만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예(23)의 ‘さしあげる’+‘くれる’와 같은 수수동사+수수동사의 경우, ‘さしあげる’는 ‘드리다’로, ‘てくれ’는 ‘-라’의 명령 어미로 제시하면서 하나의 수수동사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했다<sup>27)</sup>. 한편 영어 역은 전향동사의 구체적인 행위와 언어 기능(機能) 항목에 의해 번역되었다. 그 예로 예(20)와 같이 사물의 이동을 나타내는 ‘send’로의 번역이나 예(21)과 같이 우편물의 이동 과정 속의 ‘주는 자’의 행위인 ‘write’로의 번역이 있었다. 그리고 전향동사 ‘来る’가 포함된 영어 역은 ‘come’ 또는 ‘bring’이 사용되었다. 예(23)과 같이 수수동사+수수동사의 경우는 문 구조와 언어기능(機能)항목에 초점을 두어, ‘my mother(母)+wish(てくれ)’+‘me(없음)+present(드리다)’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면서 각각의 주체와 방향을 제시하고 번역했다.

(24) 先生は自分の知っている限りの知識を、快く私に与えてくれた上に、必要の書物を、二、三册貸そうといった。

[한] 선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쾌히 알려줌과 동시에 필요한 서적을 두세 권 빌려주겠다고 했다.

[영] He willingly gave me all the information he could, and then offered to lend me two or three books that were necessary for my work.

(25) 奥さんに迷惑を掛けて済まんから宜しく詫をしてくれという句もありました。

[한] 아주머니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니 대신 사과 말씀을 잘 드려달라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27) 수수동사+수수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은 의미전달을 위해 ‘一人貰ってやろうか(하나 얻어다 줄까)’ ‘お母さんを大事にしてやってくれ(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해라)’와 같이 순차적으로 번역하거나 제 3의 동사 또는 하나의 동사에 초점을 두어 다른 동사는 서브로 번역하는 모습이 있었다.

[영] He asked that I apologize to Okusan on his behalf for causing her so much trouble.

예(24)(25)는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받는 자’인 화자에게 전해지는 감정이나 정보와 같은 추상적인 사항과 함께 ‘주는 자’의 행위의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어 역은 ‘주다’ ‘드리다’와 같이 수수의 의미로 번역되었으며, 영어 역은 수여의 ‘give’외에 ‘apologize’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의 동사로 번역되었다.

예(24)를 보면 ‘知識’라는 이동 대상에 대한 결과의 영향은 화자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는 현상으로 한국어 역으로 ‘주다’라는 표현이 이용되었다. 영어 역은 수여의 ‘give’가 이용되었는데, 전향동사가 ‘与える’와 같이 수여에 관한 동사라는 것을 보면 ‘give’ 역시 전향동사의 행위에 대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또 예(25)와 같이 추상적인 대상이 이동될 수 있도록 행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한국어 역은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드리다’와 그러한 행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달라’로 번역되었다. 영어 역은 이동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동사 ‘apologize’와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ask’로 나누어 각 주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번역했다. 일본어 수수동사의 특성상 ‘주는 자’ 또는 ‘받는 자’가 생략되어도 각각의 주체와 이동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데, 한국어 역은 ‘주다’에 ‘やる類’와 ‘くれる類’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앞뒤 전후 문맥과의 관계없이 하나의 문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영어는 ‘I’가 ‘Okusan’에게 ‘apologize’하기를 ‘he’가 ‘ask’했다는 것처럼 각각의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6) 奥さんは私を静かな人、大人しい男と評しました。それから勉強家だとも褒めてくれました。

[한] 아주머니는 나를 말이 없는 사람, 얌전한 청년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었습니다.

[영] Okusan was wont to comment on my calm disposition-as she would call it-and my quietness, and on one occasion praised me for being so studious.

(27) 「あなたも喜んで下さい」

[한] “당신도 축하해주세요”

[영] “Do say that you are pleased.”

(28) 「作さんよく来てくれた。作さんは丈夫で羨ましいね。己はもう駄目だ」

[한] “사쿠야, 정말 잘 왔다. 사쿠는 건강해서 부럽군. 나는 이제 절망적이야.”

[영] “Oh, it is you, Saku-san.” “It was good of you to come, Saku-san. I envy you your good health. I am finished.”

예(26)~(28)은 구체적인 사물은 이동하지 않지만 행위 자체가 이동된 경우다. 번역 예를 보면 제 3의 동사의 사용도 보이긴 했지만 한국어 역은 ‘-주다’ ‘전향동사’, 영어 역은 ‘전향동사’가 중심이 되어 번역되었다.

예(26)(27)과 같이 화자에게 마이너스적인 결과를 주지 않는 경우나 의뢰·부탁의 의도를 나타낼 때, 한국어 역은 ‘-주다’ 동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영어 역은 은혜나 이익의 이동보다는 이동 과정 및 이동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명령형+전향동사<sup>28)</sup>’로 번역되어 문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보였다. 예(28)과 같이 ‘くれる類’ 동사와 접속된 전향동사가 구심적 방향의 이동 동사일 때는 한국어 역의 경우 전향동사만으로도 번역이 가능했으며 영어 역 역시 전향동사만으로 번역했다.

보조동사 ‘てくれる類’의 한국어 역과 영어 역의 번역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8) ‘てください’가 의뢰나 부탁 표현일 때의 영어 역은 ‘please’가 더해지거나 ‘I want to’ ‘I wish to’처럼 직접적인 명령 표현을 피한 표현이 보였다.

〈표 6〉 이동대상에 구체적인 사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번역 예

한국어	てくれる	영어
보내주다, 보내 달라	学費, 金, 手紙, 返事	send, forward
부쳐오다, 말하다	郵便, 為替と手紙	write, bring
-주다, 들다, 그렇게 하다	酌, 杯	serve, raise, do
가져오다	膳, 茶, 蕎麦湯	bring, come in with
드리다	これ(椎茸)	present
결혼하다, 보내다	女, 嫁	bride, marry
-주다	所有物	receive
-주다	半襟, 仮面	bring out, put on
-주다	火鉢	returned with
-주다	一滴の潤	feel
한국어	てくださる	영어
보내다	何(郵便)	write
그렇다	(娘)	have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대상이 우편물일 때의 한국어 역은 ‘送る’와 같은 이동의 뜻을 지닌 어휘가 사용되었고, 영어 역은 ‘send’ ‘forward’ ‘write’와 같은 우편물의 이동 및 행위에 관련된 어휘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동대상이 사람일 때의 한국어 역은 ‘送る’ ‘行かせる’ 외에 구체적인 행위인 ‘結婚する’에 준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었고, 영어 역은 ‘bride’ ‘marry’ 외에도 소유를 의미하는 ‘have’로도 번역되었다. 한국어 역은 ‘동사→동사’로의 번역이 보였는데, 영어는 ‘동사→동사’에 한정되지 않고 ‘동사→명사’로 번역되는 모습도 있었다.

〈표 7〉 이동대상에 추상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의 번역 예

한국어	てくれる	영어
-달라, -주다, 대답하다	こと・事	know, tell, see
받아들이다	それ(違っている点)	take
숨기다	隠し立て	hide
잡다	好都合	come
-주다, -달라, 알아보다	就職先, 口(就職先)	inform, find, help
-주다, 알다	知識	give, grasp
-달라	気にいらないどこ	be told

한국어	てくれる	영어
-주다, -달라, 듣다, 말하다, 전하다, 나누다, 한마디 하다, 주의를 끌다	注意, 説明, 言い 記事, 話, 一言	point out, listen, say, tell, talk not raise, whisper, inform, have, ask to spread, clear
-주다	指導	lecture
묻다	問い	ask after
-주다	意味	understand
-주다, -달라, 맡기다	世話	look after, helpful, kind, found
말하다, 충고하다	忠告	say, advise
-달라	詫	ask+apologize
-달라	面倒	look after
-주다	親切	give
-주다	給仕	wait on
한국어	てくださる	영어
계시다	事	say
-주다	悪い所	tell
-주다	就職先	will find
몰이 들다	かぶれ方	be influenced
-주시다, 알아두다, 기억해두다	記憶	want to keep, remember will see, look back
-주시다	意味, 判断	explain, tell
-주시다	問題	discuss
이야기를 하다, 묻다, -주시다	話	go on, tell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도 지식, 친절, 취업 의뢰와 같이 이동된 결과가 플러스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한국어 역은 일본어의 은혜표현을 전하고자 ‘-주다’ ‘-주시다’로 번역되는 양상이 있었다. 반면 영어 역은 전향동사의 구체적인 행위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역이 ‘동사⇨동사’로의 번역이 보였는데, 영어는 ‘동사⇨동사’에 한정되지 않고 ‘동사⇨형용사’로 번역되는 모습도 있었다.

〈표 8〉 이등대상에 사물이 없는 경우의 번역 예

한국어	てくれる	영어
-달라	保たす	keep
있다가다, 계시다, 있다	いる, 生きる	wish to stay, survive,
-주다	泊る	remain
-주다	行く	be financially
-달라, 오다, 들어오다	来る, 帰って来る, 入る	come, stride into, consent
-달라	開ける	must open
그만두다	止す	not talk
-주다	卒業する, 学校をでる	graduate, graduation
-달라	遠退いて見る	ask to step back
-보다, 해석하다, -주다	思う, 推断する, 理解する	regard, say, know
-주다	愛する, 慎む, 喜ぶ, 聞かせる	love, lose-vigor, pleasure, be pleased, describe
-주다	取り計らう, 祝う 脱がせる, 着せる	arrange, settle, congratulate, help
-주다, -달라	する, やる	do
인정하다, 내보이다	首肯がる, 取り合う	take, say
모시다, 안내되다	してやる, 会う	look after, be shown
-달라	待つ, 呼ぶ	would wait, call
사과하다, -주다	許す, なる, する, ほめる	forgive, can be, praise, say
놓이다, 대하다	飾る, 取り扱う	decorate, behave
한국어	てくださる	영어
알고 계시다	いる	expect to tell
같이 가다	伴れて行く	accompany
찾아오다	来る	come
그만두다	止す	not do
-주시다	聞く, 聞かす	pay attention to, know
상상해보다	想像してみる	Imagine
안정을 찾다, 견디다, -주시다, 보내다	思う	understand, take want to know
-주시다	喜ぶ	be pleased
예외로 하다	承知する	know
-주시다, 읽다	読む	read
마음이 편하다	解釈する	think
쉬었다 가다	休ます	rest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위의 이동만 있을 때의 한국어 역은 이동을 나타내주는 동사나 ‘-주다’ ‘-주시다’의 표현 이외에도 전향동사 및 제

3의 동사를 이용한 번역이 보였다. 영어 역을 보면 'give' 'get' 'receive' 등과 같이 수수에 관련된 동사로의 번역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전향동사의 의미와 관련된 어휘를 이용한 번역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문 구조와 언어 기능에 중점을 두어 'ask' 'must' 'want' 'wish'와 같은 표현이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다. 또 한국어 역은 '동사⇔동사'로의 번역이 보였는데, 영어는 '동사⇔동사'에 한정되지 않고 '동사⇔형용사'로 번역되는 모습도 있었다.

## V. 마무리

본고는 근대소설 『こころ』안에서 사용된 'くれる類'동사가 번역가에 의해 재생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번역 양상을 '표현주체와 상대에 따른 사용' '이동대상'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

'표현주체와 상대에 따른 사용'은 다음과 같다. 'くれる類' 동사는 사전적 어휘 용법에 머무르지 않고 장면에 따라 번역되었다. '주는 자'가 손아래일 때 'くださる'가 사용된 예가 편지글에 다수 있었는데 이때에는 한국어도 정중체로 번역되었다. '주는 자'가 손위의 인물일 때 사용된 'くれる'에 대한 한국어 역은 '주는 자'가 부모라면 부모의 행위에 대해 전부는 아니지만 가급적 높여서 번역하는 경향이 보였다. 정중도에 대한 영어 역의 차이는 'くれる類' 동사가 부탁·의뢰·명령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나타났는데, 'くれる'보다 'くださる' 쪽에서 'please'의 사용이 보였다.

'이동대상'에 따른 번역 양상은 다음과 같다. 본동사로 사용될 때의 한국어 역은 'くれる' 'くださる'에 대응하는 '주다' '주시다'로 번역되었지만, 영어 역은 이동 대상의 특징에 따라 번역 어휘가 다양하고 구체화된 행위의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보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한국어 역과 영어 역은 행위의 이동 이외에 사물의 이동이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번역 어휘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 역은 구체적인 사물과 더불어 행위의 이동이 있을 때는 '-달라' '-주시다' 등과 같은 수익을 나타내는 번역이 우세했다. 추상적인 사항과 함께 행위의 이동이 있을 때와 이동

대상에 행위만 있을 때의 한국어 역은 수익을 나타내는 번역도 있었지만, 전향동사의 행위로 번역된 예도 보였다. 영어 역은 구체적인 사물 및 추상적인 사항이 포함된 행위의 이동이 있을 때나 행위의 이동만 있을 때도 전향 동사의 구체적인 행위로 번역된 예가 우세했다. 부탁·의뢰를 나타내는 표현에 한국어 역은 ‘-달라’ ‘-주세요’와 같이 ‘くれる’와 ‘くださる’에 대응하는 번역이 있었던 반면, 영어 역은 ‘must’ ‘ask’ ‘wish’ ‘would’ ‘would like to’ ‘please’와 같이 문 구조나 언어 기능 항목에 초점을 두어 행위를 구체화 시키는 번역이 있었다. 또, 한국어 역은 ‘동사(일본어)⇒동사(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영어 역은 ‘동사(일본어)⇒동사(영어)’ 외에 ‘동사(일본어)⇒명사, 형용사(영어)’로도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금후 본고를 바탕으로 ‘やる類’동사와 ‘くれる類’동사의 주격과 여격 목적어 간의 관계에 따른 번역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 남승호,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어학연구』, 2003.
- 라데군디스 슈톨체, 『번역이론 입문』, 임우영 외 역,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2011.
- 서석연, 『마음』 범우사, 1990.
- 양정순, 「소설 속의 'もらう類'동사의 번역양상 -夏目漱石의 『こころ』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50, 2017.
- \_\_\_\_\_, 「소설 속의 'やる類'동사의 번역양상 -夏目漱石의 『こころ』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98, 2016.
- 윤상인 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소명출판, 2008.
- 임지룡,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2014.
- 조남성, 『일본어오용분석』, 보고서, 2007, p.69.
- Edwin McClellan, 『KOKORO』, HENRY REGNER COMPANY, 1957.
- 高見澤孟 『新・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2』, アスク, 2004.
- 久野曄, 『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1978.
- 吉川千鶴子, 『日英比較動詞の文法』, くろしお出版, 1995.
- 金谷武洋, 『日本語文法の謎を解く』, ちくま新書, 2003.
- 大杉文彦, 『言海』, 関西売捌所, 1889.
- 森田良行, 『日本語の視点—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 創拓社, 1995.
- 沼田善子, 「授受動詞文と対人認知」 『日本語学』 18, 明治書院, 1999.
- 奥津敬一郎, 「授受表現の対照研究-日・朝・中・英の比較-」 『日本語学』 明治書院, 1983.
- \_\_\_\_\_, 「日本語の授受動詞の構文-英語・朝鮮語と比較して-」, 『人文學報』 132 東京都立大学, 1979.
- 遠藤嘉基·池垣武郎, 『日本文学史』, 中央図書, 1960.
- 林八龍, 「日本語-韓国語の受給表現の対照研究」, 『日本語教育』 40, 1980.
- 豊田豊子,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 『日本語学校論集』 1, 東京外国語大学, 1974.
- 花田康紀, 『現代日本語の受給表現をめぐって-動詞の中止形+受給動詞の場合-』, 東京国際大学論叢, 人間社會學部編 55, 1998.

❖ ABSTRACT

Aspects of Korean and English Translation of  
'KURERU' in the Novel  
— about NATSUMESOSEKI 『KOKORO』

Yang, Jungsoon

This study analyzed how an aspect of translation can be shown on the 'Kureru type(くれる類)' verbs in 『Kokoro』, which was a Japanese modern novel when it was reproduced by translators. It focused on 'the use in accordance with a subject of expression and the other person' and 'the object of movement'.

'The use in accordance with a subject of expression and the other person'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Kureru type' verbs were not translat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use of vocabulary in a dictionary. 'Kudasaru' was used in many examples of letter writing when 'the giver' was younger and it was translated to a polite form in Korean. 'Kureru' had a characteristic when 'the giver' was older in Korean translation. The act of parents was translated to an honorific form if parents were 'givers' regardless of whether a listener was an internal character or an external character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degree of politeness was different in English translation when the 'Kureru type' verbs were used for asking a favor·request·command. 'Please' was used more for 'Kudasaru' than 'Kureru'.

An aspect of tran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of movemen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Kureru type' verbs were used as main verbs. 'Kureru' and 'Kudasaru' were translated to 'Juda' 'Jusida' in Korean translation, but they were translated to various vocabulary word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object of movement' and were translated to imply a specific act, the process of possession and the result of possession in English translation. The 'Kureru type' verbs were also used as auxiliary verbs. The translated vocabulary words for Korean translation and English translation wer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whether the movement of things other than

the movement of act was included or not. Examples were translated predominantly to expressions of profit such as '-Jada' '-Dalla' '-Jusida' when there was a movement of act as well as specific things in Korean translation. Also, some examples were translated to expressions of profit when there was the movement of act with an abstract matter and there was only the act of the object of movement, but many examples were translated to the act of first verbs. Examples were translated predominantly to the act of first verbs when there was the movement which included specific things and abstract matters or there was only the movement of act in English translation. Expressions of asking a favor·request such as 'Kureru' and 'Kudasaru' were translated to '-Dalla' '-Juseyo' in Korean translation, but they were translated to expressions which specify an act while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sentences or the function of language, such as 'must', 'ask', 'wish', 'would', and 'would like to' 'please' in English translation.

Key Words : give and receive verbs, translation patterns, contrast, object, politeness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